

글쓰기교실 ‘잘’ 이용하기

오희정*

지난 학기 글쓰기교실의 상담 결과를 살펴보면 글쓰기교실을 처음 방문한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글쓰기교실이 상담을 시작한 지도 어느새 4학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매학기 처음 방문하는 학생의 수가 한 번 이상 이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의 수보다 많다. 처음 상담 온 학생의 대다수는 교수님이나 핵심교양 교과목 T.A.의 권고로 방문하게 되었고 글쓰기교실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상담은 늘 글쓰기교실의 소개와 상담에 대한 안내로 시작된다. 글쓰기교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여러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그 존재를 모르고 있다. 혹은 글쓰기교실의 이름은 들어보았으나 무엇을 하는 곳인지, 또는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몰라 방문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아직 글쓰기교실을 잘 알지 못하는 재학생과 이제 갓 입학하여 글쓰기교실이라는 이름마저 생소할 신입생에게 글쓰기교실을 소개하고 그 이용 방법을 알리고자 한다.

글쓰기교실의 중심 업무는 리포트 상담이다. 글쓰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은 누구나 글쓰기교실에서 자신이 작성한 글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글쓰기교실은 각종 코스워크와 워크숍을 통해 글 쓰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밖에도 글쓰기 교과목과 온라인 강좌를 개발하고, 연구노트 및 글쓰기 교재를 발간하고 있다. 즉 글쓰기교실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무료’ 학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서울대학교 학생이면 누구나 글쓰기에 대한 전반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사실 글쓰기교실에서 상담을 받는 학생들의 수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지속적으로 글쓰기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극소수이다. 필자가 지난 한 학기 동안 두 번 이상 상담을 한 학생은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이다. 필자 이외의 다른 상담 조교와 상담한 경우를 포함하여도 여러 번 상담 받은 학생의 숫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의외로 적은 수의 학생들만 글쓰기교실

*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 조교

을 이용하고 그 중 일부만이 지속적으로 글쓰기교실을 이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학생들은 왜 글쓰기교실을 이용하지 않는가?

앞서 언급한 대로, 글쓰기교실의 존재를 몰라 이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글쓰기교실에 대해 알고 있어도, 차마 방문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자신의 글을 남아 읽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자신의 글을 남, 그것도 전혀 모르는 존재에게 보여주는 것이 쉽지 않다. 실제로 상담 학생들 가운데 일부는 낯선 사람(상담 조교)이 여기저기 첨삭한 자신의 글을 가져와 이런 저런 말을 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긴다. 그러나 이런 학생들도 대부분 상담을 시작하고 약간의 시간이 흐르면 자신의 글이 ‘평가’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조언’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차츰 편한 마음을 갖게 된다. 상담이 끝날 무렵엔 상담 시간이 조금 더 길었으면 하고 아쉬움을 표현하는 경우도 많다. 글쓰기교실의 상담 조교들은 결코 학생들의 글을 평가하거나 채점하지 않는다. 다만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좋은 글이 될 수 있을까를 이야기한다. 혹시라도 자기를 드러내 보이는 것 같아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분들은 이 글을 읽고 용기(!)내어 한 번 방문해 봄으로써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몸소 체득하기를 바란다.

처음엔 글쓰기교실에 오는 것을 쑥스러워 하던 학생들 중에 글쓰기교실의 ‘팬’이 된 경우가 있다. 교수님의 권고로 특정 과목의 글을 ‘의무적’으로 상

담하러 왔다가 ‘스스로’ 다른 과목의 글도 상담 받기 위해 찾아오기도 한다. 또는 먼저 글쓰기교실을 방문했던 친구의 추천으로 왔다가 오히려 자신이 더 자주 이용하게 된 학생들도 있다. 처음엔 호기심에 왔다 글쓰기교실에서 상담 결과에 만족하여 계속해서 이용하기도 한다. 이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방문한 학생들 중 일부는 글쓰기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글쓰기교실의 ‘팬’이 되어 꾸준히 이용하고 있다. 대개 그런 학생들의 글은 꾸준한 상담을 통해 많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무엇이든지 처음이 어렵다. 처음 그 낯설음을 조금 참고 한두 번 상담을 반다 보면 점차 마음이 편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점점 향상되어 가는 자신의 글솜씨에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더 갈고 닦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이다. 글은 누구나 쓸 수 있지만, 누구나 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얻기 힘든 것 중의 하나가 글쓰기 능력이다. 그리고 대학 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익혀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글쓰기이다. 대학에서 요구하는 과제는 대부분 글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리포트이다. 대학 생활에서 리포트 한 번 제출하지 않고 졸업하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리포트 작성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리포트 쓰기는 한번에 익히거나 저절로 알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리포트와 같은 학문적 글쓰기에는 일정한 양식이 있으며, 그 요건을 갖추어 글을 쓴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글쓰기교실을 방문하는 신입생

은 물론, 4학년 학생 중에도 의외로 리포트 작성법을 몰라 여전히 고심하는 학생들이 있다. 많은 고학년 학생들이 좀더 일찍, 아니 1학년 때부터 리포트 작성법을 배웠더라면 보다 나은 글을 쓸 수 있었을 것이라고 후회한다.

간혹 일부 학생들이 글쓰기교실의 상담을 받으면 당장 A학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찾아오기도 한다. 때론 상담 조교가 자신의 글을 모두 고쳐 줄 것으로 기대하고 오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모두 글쓰기교실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글쓰기교실은 ‘대필’을 해 주는 곳이 아니다. 글쓰기교실의 상담을 받았다고, 그 리포트가 당장 좋은 학점을 받는 것을 바라지 말자. 그보다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의의를 두어야 할 것이다. 글쓰기 실력이 늘면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당연히 뒤따르는 이점이 될 것이다. 가끔 하나의 글을 가지고 여러 차례 상담을 받으러 오는 학생이 있다. 처음 상담에서 거론된 부분들을 성실히 고쳐 다시 온 학생들을 보면 상담 조교들은 그 노력에 큰 감동을 받는다. 같은 글을 여러 번 상담하면 그 글이 확연히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신의 글에 대해 그만큼 많이 고민하고 노력한 흔적이 그대로 묻어나는 것이다. 그러한 글의 평가 결과는 당연히 좋을 것이다.

아마 지금쯤 당장 글쓰기교실을 방문해 글쓰기 상담을 받고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글쓰기교실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으로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대학 생활을 보다 알차게 보내는 한 가지 목표로 글쓰기를 꿇고 있다면, 글쓰기교실을 자주 이용하고자 권하고 싶다. 다음으로 글쓰기교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몇 가지 지침을 알려주고자 한다. 다음의 지침을 기억한다면 글쓰기교실 이용에 있어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글쓰기교실의 상담을 받기 위해선 글쓰기교실 홈페이지(writing.snu.ac.kr)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상담을 받으려면 원하는 상담 일자를 전까지 미리 글을 써서 첨부해야 한다는 시간적 부담감이 있었다. 그러나 2005년 1학기부터는 원하는 상담일 하루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상담을 위해 글을 미리 써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게 줄어들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조금만 서두르면 리포트 제출 전 상담을 받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사전에 상담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획서와 같은 짧은 글에 대해서는 사전 예약 없이 즉시 방문하여 간단한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다음으로 원하는 상담의 종류를 선택하자. 먼저 상담의 종류가 학부생 상담, 대학원생 상담, 외국인 상담으로 나뉘어 있으므로, 자신의 신분에 맞는 상담을 선택한다. 학부생 상담은 상담 조교가, 대학원생 상담은 선임연구원이, 외국인 상담은 외국인 전문 상담 조교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외국인 학생은 한국어 운용에 보다 초점을 둔 상담을 원하는 경우엔 외국인 상담으로, 한국어 사용에 큰 무리가 없는 경우에는 학부생 혹은 대학원생 상담으

로 신청할 수 있다.

현재 글쓰기교실에서 제공하는 상담을 상담 방식에 따라 나누어 보면 일반 상담, 이메일 상담(기존의 온라인 상담), 당일 방문 상담이 있다. 각각의 상담의 특징은 홈페이지에 잘 기술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로 자신이 원하는 상담의 종류를 선택하면 된다. 다만 개인적으로 가장 권하고 싶은 것은 글의 초안을 작성하여 그 글을 토대로 상담 조교와 직접 만나 상담하는 일반 상담이다. 글에 대한 자세한 첨삭은 물론 직접적인 설명도 들을 수 있고,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글의 방향을 모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 상담의 경우에는 상담을 원하는 글의 종류나 분야에 따라 상담 조교를 선택할 수도 있다. 현재 글쓰기교실에는 여섯 명의 상담 조교가 있다. 이들은 모두 박사과정 이상으로, 전공 분야가 다르고 상담 시 중점을 두는 사항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보다 전문적이고 세심한 상담을 원한다면, 홈페이지에 소개된 상담 조교의 이력 사항을 참고하여, 자신의 글을 가장 잘 상담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조교를 ‘골라서’ 신청하자. 글쓰기교실의 ‘팬’인 한 학생은 여러 차례 글쓰기교실을 이용해 각 조교의 특징을 파악하고, 각 상담 조교의 장점을 이용해 초안은 A조교에게 문장과 표현은 B조교에게 신청하여 글쓰기교실 이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상담 신청 시 작성하게 되어 있는 ‘세부 사항’을 가급적 자세히 기록하자. 과제는 무엇이었으며, 자신이 글을 쓰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상담 조교가 집중적으로 살펴봐 주기를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상세히 기록하자. 상담 조교가 학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때는 미루어 짐작하여 상담을 준비하지만, 가끔 준비한 내용이 학생이 요구하는 사항과 다른 때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상담을 하는 중간에 상담의 방향을 수정해야 하므로 부득이하게 상담 시간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최상의 상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세부 사항의 기록은 필수임을 기억하자.

이제 남은 일은 상담 당일, 상담 시간에 맞추어 글쓰기교실로 오는 것이다. 간혹 상담을 신청하고 오지 않는 학생이 있다. 이러한 행동은 다른 학생들의 상담 기회를 공연히 빼앗은 셈이 되므로, 상담을 신청하였다면 잘 기억해 두었다가 상담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하자. 만약 불가피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미리 전화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상담을 받는 동안에 ‘가만히’ 앉아 있지 말자는 것이다. 간혹 상담 받는 내내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묻는 말에 겨우 대답(그것도 단답식으로 간략히)만 하는 학생들이 있다. 상담은 상담 조교의 일방적인 훈육이 아니라, ‘글’을 매개로 서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막혀 있던 생각의 매듭을 풀리게 하고, 그것을 훌륭한 글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자신의 의도가 무엇이었고 표현에 있어서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등을 이야기하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다시 물어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어느새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 이번 학기에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얼마나 다양한 글을 가지고 글쓰기교실을 방문하게 될지 기대가 크다. 한 가지 기쁜 소식은 지난 방학 동안 글쓰기교실이 61동(도서관과 인문대 5동 사이 교수학습개발센터)으로 이전하였다는 것이다. 이전 건물인 83동이 다소 외곽에 있어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이 있었다. 좀 더 접근이 쉬워진 글쓰기교실을 앞으로 많이 활용하기 바란다. **▣**